

 <b>보건복지부</b>	<b>보 도 참 고 자 료</b>			
배 포 일	2020. 5. 22. / (총 12매)			
중앙사고수습본부 전략기획팀	팀 장 담 당 자	홍 승 령 윤 민 수	전 화	044-202-3575 044-202-3804
교육부 학생건강정책과	과 장 담 당 자	조 명 연 정 희 권	전 화	044-203-6877 044-203-6547
중앙사고수습본부 생활방역팀	팀 장 담 당 자	김 정 숙 김 성 철	전 화	044-202-3155 044-202-3615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격리지원반	팀 장 담 당 자	이 병 철 전 종 형	전 화	044-205-6511 044-205-6519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

- ▲고3 등교 현황 및 조치사항, ▲수도권 추가 확진자 관련 현황 및 조치 사항, ▲고위험시설 핵심방역수칙 마련 및 이행 방안 등 -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오늘 박능후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 주재로 정부세종청사 영상회의실에서 각 중앙 부처 및 17개 시·도와 함께 ▲고3 등교 현황 및 조치 사항, ▲수도권 추가 확진자 관련 현황 및 조치 사항, ▲고위험시설 핵심 방역 수칙 마련 및 이행 방안 등에 대해 논의하였다.
- 이 자리에서 박능후 1차장은 고3 학생들의 안전한 학교생활을 지키기 위해서는 학교, 가정, 지역사회를 비롯한 국민 여러분 모두의 협조가 필요함을 강조하였다.
- 이와 함께 코로나19는 나이, 지역, 출신, 종교 등을 구분하지 않고 누구나 감염될 수 있다고 말하며,
  - 학생 중 확진자가 발생하더라도 그 학생은 우리의 친구, 자녀, 이웃이므로 우리 모두는 학부모의 마음으로 학생들을 보호하고 치료와 감염 확산 방지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했다.

## 1 고3 등교 현황 및 조치사항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고3 등교 현황 및 조치 사항에 대해 논의하였다.

- 교육부는 단계적 등교 수업 조치에 따라 5월 20일(수)부터 고3 학생이 등교하여 안정적으로 수업이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 (5월 20일) 2,363개 고등학교 중 2,277개 학교에서 등교와 수업 진행(420,850명 등교)

- 학생들이 아침에 등교하기 전에는 ‘건강상태 온라인 조사’를 실시하여 의심증상자, 동거가족의 격리 및 해외여행 등 감염 위험이 있는 학생들은 등교를 중지하고 있다.
- 또한 등교 시에는 마스크를 착용하고 발열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의심증상자에 대해서는 소방청 및 질병관리본부와 협력하여 선별진료소로 신속히 이송해 진단검사를 시행하도록 하고 있다.
- 교육부는 학교 내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할 경우 관련 지침에 따라 원격수업으로 전환하고, 방역당국의 역학조사와 진단검사를 통해 학교 구성원들의 코로나19 확산 방지에 최선을 다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 더불어 교육부는 ‘심리지원단’을 구성하여 코로나19 관련 불안과 스트레스를 극복하고, 확진자가 발생한 학교 구성원들의 심리적인 충격을 완화하며 학교 생활이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 2 수도권 추가 확진자 관련 현황 및 조치사항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수도권(서울시, 인천시, 경기도)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수도권 추가 확진자 관련 현황 및 조치사항을 보고 받고 이를 점검하였다.
- 수도권 지방자치단체들은 코로나19 추가 확진자가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해 확진자의 감염경로 등에 대한 역학조사를 시행하고, 접촉자 등에 대한 지속적인 진단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 서울시는 삼성서울병원 관련 추가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접촉자 및 능동감시자 전원에 대한 주기적 검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 아울러 이태원 클럽 집단 감염의 추가적인 확산을 막기 위해 이태원 인근 방문자에 대한 진단검사를 계속 실시하며, 확진자 발생 기관에 대한 선제적 전수검사를 확대하여 실시하기로 하였다.
  - 인천시는 확진자가 추가적으로 발생한 코인노래방과 PC방이 있는 비전프라자에 대한 방역을 시행하고, 건물을 부분적으로 폐쇄할 계획이다.
    - 노래연습장에 대한 집합금지 조치 이행 현황을 점검하고, 추가 환자 발생 차단을 위한 안내 문자, 관련 정보에 대한 누리집 게시 등도 지속할 예정이다.
  - 경기도는 부천 돌잔치 관련 추가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같은 시간대 다른 객실 이용객 등으로 진단검사 범위를 확대하여 증상 유무에 관계 없이 진단검사를 받도록 할 계획이다.

### 3 고위험시설 핵심방역수칙 마련 및 이행 방안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오늘 회의에서 고위험시설 선정기준과 대상시설, 핵심방역수칙(안)을 마련하고 그 이행 방안을 논의하였다.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고위험시설 대상시설을 가능한 최소화하며, 감염 발생 현황, 거리 두기 단계 등에 따라 변동 가능하다는 원칙에 따라,
  - 6가지 위험지표(밀폐도, 밀집도, 활동도, 군집도, 지속도, 관리도)를 기준으로 시설별 위험도를 평가하여 각 시설을 고위험시설- 중위험시설- 저위험시설로 구분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 시설별 위험도 평가지표 (안) >

주요 지표	위험도		
	낮음(0점)	보통(1점)	높음(2점)
공간의 밀폐 정도	대체로 상시 환기 가능	일정수준 환기 가능	대체로 환기 불가능
이용자간 밀집 정도	대체로 거리 두기 가능	일정수준 거리 두기 가능	대체로 거리 두기 불가능
공간 이용자의 규모·수	소규모	중규모	대규모
비밀 발생 가능성	거의 없음	일상적 대화 수준	적극적 비밀 생성
이용자의 체류 시간	수분~수십분 내	1시간 내외	수 시간 또는 그 이상
방역수칙 준수 곤란 여부	대체로 준수 가능	일정수준 준수 가능	대체로 준수 불가능

- 위험도 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유흥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노래연습장, 단란주점 등 총 9개 시설을 고위험시설(안)로 구분하였다.
- 시설의 위험요소 개선 노력 등으로 위험도가 낮아질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중위험시설로 하향할 수 있도록 평가하는 세부 지침도 마련하고 있다.

### < 유형별 위험도 분류 및 대상시설(안) >

구분	시설 유형	세부 고위험시설	주요 위험 요소
고위험 시설	음식점	헌팅포차, 감성주점	밀집도, 활동도, 관리도
	유흥시설	유흥주점(클럽 룸살롱 등), 단란주점, 콜라텍	밀집도, 활동도, 군집도, 관리도
	체육시설	실내집단운동(격렬한GX류) * GX(Group Exercise) : 줌바, 태보, 스피닝 등	밀폐도, 활동도
	여가시설	노래연습장	밀폐도, 활동도, 관리도
	공연시설	실내 스탠딩공연장( 관객석 전부 또는 일부가 입석으로 운영되는 공연장), 대규모콘서트장	밀집도, 활동도, 군집도, 관리도

- 9개 고위험시설에 대해서는 위험 요소 등을 고려하여 반드시 준수해야 할 핵심 방역수칙(안)을 마련하였으며, 사업주 외에도 이용자가 지켜야 하는 핵심수칙을 함께 논의하였다.

### < 시설별 핵심 방역수칙(안) >

세부 고위험시설	사업주 수칙	이용자 수칙
헌팅포차, 감성주점 유흥주점(클럽, 룸살롱 등), 콜라텍 단란주점	△출입자 명단 작성 및 증상체크 △종사자 마스크 착용 △영업 전/후 소독 △방역관리자 지정 및 관할 보건소 신고	△명단 기재 (본인의 성명, 전화번호를 정확히 기재) △마스크 착용(음식물 섭취 시 제외) △증상확인 협조
노래연습장	△출입자 명단 작성 및 증상체크 △종사자 마스크 착용 △영업 전 실내소독 및 영업 중 브레이크 타임(1시간) 운영 후 실내 소독 △손님이 사용한 방은 노래방 문을 닫고 30분 뒤 소독 실시 후 이용 △방역관리자 지정 및 관할 보건소 신고	△명단 기재 (본인의 성명, 전화번호를 정확히 기재) △증상확인 협조
실내 스탠딩 공연장 대규모 콘서트장	△출입자 명단 작성 및 증상체크 △공연 전/후 소독 △방역관리자 지정 및 관할 보건소 신고	△마스크 착용 △증상확인 협조
실내집단운동 (격렬한 GX류) * GX(Group Exercise) : 줌바, 태보, 스피닝 등	△종사자 마스크 착용 △수업 전/후, 샤워실, 탈의실 등 소독 △수강생 증상체크 △방역관리자 지정 및 관할 보건소 신고	△마스크 착용 △증상확인 협조

- 고위험시설의 핵심 방역수칙 이행을 위해 사업주와 이용자에게 방역수칙 준수 행정조치를 시행하고, 관계 부처·지방자치단체 합동점검단 등을 통해 이행 점검을 강화하는 방안을 논의하였다.
  - 방역수칙을 위반할 경우,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설 사업주와 이용자에게 벌금(300만 원 이하)을 부과하거나 집합금지 조치를 시행할 수 있다.
- 이와 함께 이용자 명단을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정보통신기술(ICT) 등을 활용하는 방안과,
  -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명단 보존 기간은 역학조사에 필요한 기간 등을 고려하여 4주로 명확화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하였다.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오늘 논의를 토대로 관계부처, 지방자치단체,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수렴을 거쳐 조속한 시일 내에 고위험 시설에 대한 핵심 방역수칙과 이행 방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 4 생활 속 거리 두기 이행 상황 및 점검 현황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지방자치단체의 생활 속 거리 두기 이행 상황을 점검하였다.
- 5월 21일(목)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학원·독서실 1,766개소, ▲PC방 492개소 등 총 41,205개 시설을 점검하였다.



- 점검 결과 이용자 간격 유지 미준수, 출입 대장 작성 미흡 등 방역수칙을 위반한 609건에 대해서는 행정지도를 실시하였다.
- 충청북도도 밀집 다중이용시설을 대상으로 소독수칙을 강화할 것을 권고\*하였으며, 이용자 간격 유지 미흡 등 방역수칙을 위반한 PC방 29개소와 노래연습장 43개소에 대해서는 행정지도 조치하였다.

\* 매일 1~2회 → 3회 이상 소독·환기(학원, 콜센터, 노래연습장, PC방, 단란주점 등)

- 아울러 중앙합동점검을 통해 노래연습장 6개소, PC방 2개소, 유흥시설 25개소, 실내체육시설 6개소 등 71개 시설을 점검하였고, 점검과정에서 더워진 날씨 속에서 전통시장 등에서 마스크 미착용 사례 등을 다수 점검하였으며, 기본적인 방역수칙에 대한 홍보가 지속되어야 함을 확인했다.
- 클럽·감성주점 등 유흥시설 9,228개소를 대상으로 지방자치단체·경찰·식품의약품안전처가 합동(232개반, 1,501명)하여 심야 시간(22시~02시) 특별점검을 실시하였다.
- 점검 결과 6,835개소가 영업 중지 중임을 확인하였고, 영업 중인 업소 2,393개소 중 집합금지조치를 위반한 1개소를 적발하였으며, 출입자 명부 관리 미흡, 마스크 미착용 등 방역수칙 위반 시설 12개소는 즉각 현장 조치하였다.
- 현재 15개 시·도 15,330개소의 유흥시설에 대한 집합금지 조치가 시행 중이며, 어제(5월 21일)까지 위반업소 51개소를 적발하여 31개소는 고발하였고, 18개소는 고발할 예정이다.

## 5 자가격리자 관리 현황 및 관리 방안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오늘 회의에서 자가격리자 관리 현황 및 관리방안을 점검하였다.

○ 5월 21일(목) 18시 기준 자가격리 관리 대상자는 총 34,624명이고, 이 중 해외 입국 자가격리자는 29,497명, 국내 발생 자가격리자는 5,127명이다.

- 2,746명이 신규 자가격리 대상자로 등록되고, 2,990명이 해제되어 전체 자가격리자는 전일 대비 244명이 감소하였다.

- 신규 자가격리 대상자 2,746명 중 645명은 국내 발생으로 나타났고, 지역별로는 서울 143명, 경기 201명, 인천 206명 등 수도권 지역의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 해외입국자나 거처가 없는 자가격리자를 대상으로 100개소 2,810실의 임시생활시설을 운영하고 있으며, 800명이 입소하여 격리 중이다.

\* (5월 21일) 입소 174명, 퇴소 188명, 의료진 등 근무 인력 392명

□ 한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자가격리자를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해 '자가격리자 안전관리 앱', 안심 밴드 등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자가격리자 관리 방안을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다.

○ 자택에서 자가격리 중인 격리자의 소재지를 확인하고 건강 상태를 자가 진단하기 위해 '자가격리자 안전관리 앱'을 개발하여 관리에 활용하고 있으며, 5월 21일 18시 기준, '자가격리자 안전관리 앱' 설치율은 93.5%이다.



- 또한 어제(5월 21일)는 무단이탈자 3명이 인근 마트 방문 등을 위해 격리장소를 이탈한 사례가 확인되어 2명은 고발 예정이며, 1명은 고발을 검토 중이다.
- 지금까지 안심밴드를 착용한 사람은 총 54명이며, 이 중 38명은 자가격리가 해제되어 현재 16명이 안심밴드를 착용하고 있다.

- < 붙임 > 1. 감염병 보도준칙  
2. 코로나19 심각 단계 행동수칙

- < 홍보자료 별첨 > 1. 코로나19 예방수칙  
2. 대한민국 입국자를 위한 격리 주의사항 안내  
3. 자가격리 대상자 및 가족·동거인 생활수칙  
4. 자가격리 환자 생활수칙  
5. 확진 환자 격리해제 시 생활수칙  
6. <일반 국민> 코로나19 스트레스 대처방법  
7. <확진자> 코로나19 스트레스 대처방법  
8. <격리자> 코로나19 스트레스 대처방법  
9. 마스크 착용법  
10. 생활 속 거리 두기 행동수칙

## 붙임1

## 감염병 보도준칙

- 다음은 2020년 4월 28일, 한국기자협회·방송기자연합회·한국과학기자협회에서 제정한 「감염병 보도준칙」의 주요 내용입니다. 감염병 관련 보도 시에 참고해주시길 바랍니다.

### 감염병 보도준칙

#### ■ 전문

감염병이 발생했을 때 정확하고 신속한 정보는 국민의 생명 보호와 안전에 직결되는 만큼 무엇보다 정확한 사실에 근거해 보도해야 한다.

추측성 기사나 과장된 기사는 국민들에게 혼란을 야기한다는 점을 명심하고, 감염병을 퇴치하고 피해 확산을 막는데 우리 언론인도 다함께 노력한다. 감염병 관련 기사를 작성할 때는 반드시 전문가의 자문을 구한 뒤 작성하도록 하고, 과도한 보도 경쟁으로 피해자들의 사생활이 침해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한다. 우리 언론인은 감염병 관련 기사가 우리 사회에 미치는 영향력과 사회적 파장이 크다는 점을 이해하고 다음과 같이 원칙을 세워 지켜나가고자 한다.

#### ■ 기본 원칙

##### 1. 감염병 보도의 기본 내용

- 가. 감염병 보도는 해당 병에 취약한 집단을 알려주고, 예방법 및 행동수칙을 우선적, 반복적으로 제공한다.  
나. 감염병 치료에 필요한 의약품이나 장비 등을 갖춘 의료기관, 보건소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다. 감염병 관련 의학적 용어는 일반인들이 이해하기 쉽게 전달한다.

##### 2. 신종 감염병의 보도

- 가. 발생 원인이나 감염 경로 등이 불확실한 신종 감염병의 보도는 현재 의학적으로 밝혀진 것과 밝혀지지 않은 것을 명확하게 구분하여 전달한다.  
나. 현재의 불확실한 상황에 대해 의과학 분야 전문가의 의견을 제시하며, 추측, 과장 보도를 하지 않는다.  
다. 감염병 발생 최초 보도 시 질병관리본부를 포함한 보건당국에 사실여부를 확인하고 보도하며, 정보원 명기를 원칙으로 한다.

##### 3. 감염 가능성에 대한 보도

- 가. 감염 가능성은 전문가의 의견이나 연구결과 등 과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보도한다.  
나. 감염병의 발생률, 증가율, 치명률 등 백분율(%) 보도 시 실제 수치(건, 명)를 함께 전달한다.  
다. 감염의 규모를 보도할 때는 지역, 기간, 단위 등을 정확히 전달하고 환자수, 의심환자수, 병원체보유자수(감염인수), 접촉자수 등을 구분해 보도한다.

##### 4. 감염병 연구 결과 보도

- 가. 감염병의 새로운 연구결과 보도 시 학술지 발행기관이나 발표한 연구자의 관점이 연구기관, 의료계, 제약 회사의 특정 이익과 관련이 있는지, 정부의 입장을 일방적으로 지지하는지 확인한다.  
나. 감염병 관련 연구결과가 전체 연구중의 중간 단계인지, 최종 연구결과물인지 여부를 확인한 후 보도한다. (예: 임상시험 중인 약인지, 임상시험이 끝나고 시판 승인을 받은 약인지 구분해 보도)

##### 5. 감염인에 대한 취재·보도

- 가. 불확실한 감염병의 경우, 기사를 매개로 한 전파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감염인을 직접 대면 취재하지 않는다.  
나. 감염인은 취재만으로도 차별 및 낙인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감염인과 가족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사생활을 존중한다.  
다. 감염인에 대한 사진이나 영상을 취재·보도에 활용할 경우 본인 동의없이 사용하지 않는다.

##### 6. 의료기관 내 감염 보도

의료기관 내 감염 확산에 대한 취재·보도 시, 치료환경에 대한 불안감 및 혼란을 고려해 원인과 현장 상황에 대해 감염전문의가의 자문과 확인이 필요하다.

## 7. 감염병 보도 시 주의해야 할 표현

가. 기사 제목에 패닉, 대혼란, 대란, 공포, 창궐 등 과장된 표현 사용  
 “국내 첫 환자 발생한 메르스 ‘치사율 40%’... 중동의 공포 465명 사망!”  
 “"해외여행 예약 0건"...여행·호텔업계 코로나19 이어 ‘코리아 포비아’ 악몽”

나. 기사 본문에 자극적인 수식어의 사용  
 “지난 2013년 한국 사회를 혼란에 빠트렸던 ‘살인진드기’ 공포가 또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온 나라에 사상 최악의 전염병 대재앙을 몰고 온 메르스(중동호흡기질환) 의심환자가 또 발생했다.”  
 “"코로나19'에 박살난 지역경제..."공기업 역할해라”

다. 오인이 우려되는 다른 감염병과의 비교  
 “야생진드기 에이즈보다 무섭네...물리면 사망위험 커”  
 “전파력 메르스 ‘1000배’...홍콩독감 유입 땀 대재앙”

## ■ 권고 사항

1. 감염병 발생시, 각 언론사는 특별취재팀을 구성해 감염병에 대한 충분한 사전 교육을 받지 않은 기자들이 무분별하게 현장에 접근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2. 감염병 발생시, 보건당국은 언론인을 포함한 특별대책반(T/F)를 구성해, 관련 정보가 국민들에게 신속하고 정확하게 전달되도록 해야 하고, 위험 지역 접근취재 시 공동취재단을 구성해 기자들의 안전 및 방역에 대비해야 한다.

## ■ 별첨

### <참고1> 감염병 정보공개 관련 법령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약칭: 감염병예방법)

##### 제34조의 2(감염병위험 시 정보공개)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국민의 건강에 위해가 되는 감염병 확산 시 감염병 환자의 이동경로, 이동수단, 진료의료기관 및 접촉자 현황 등 국민들이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알아야 하는 정보를 신속히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공개된 사항 중 사실과 다르거나 의견이 있는 당사자는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정보공개에의 범위,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5.7.6.]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약칭: 감염병예방법 시행규칙)

##### ① 제27조의3(감염병위기 시 정보공개 범위 및 절차 등)

감염병에 관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8조제2항에 따른 주의 이상의 예보 또는 경보가 발령된 후에는 법 제34조의2에 따라 감염병 환자의 이동경로, 이동수단, 진료의료기관 및 접촉자 현황 등을 정보통신망에 게재하거나 보도자료를 배포하는 등의 방법으로 국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6. 1. 7.]

### <참고2> 감염병 보도시 기본 항목

- 질병정보 (국내외 발생현황, 병원체, 감염경로, 잠복기, 증상, 진단, 치료, 환자관리, 예방수칙)
- 의심 및 확진환자 현황 (신고건수, 의심환자 건수, 확진환자 건수)
- 확진 환자 관련 (환자의 이동경로, 이동수단, 진료의료기관, 접촉자 현황 등)
- 국민행동요령 및 정부의 대책, 감염병 확산방지 및 피해최소화 위한 지역사회와 국민참여 등

## ■ 부 칙

이 준칙은 2020년 4월 28일부터 시행하고, 이 준칙을 개정할 경우에는 제정 과정에 참여한 3개 언론단체 및 이 준칙에 동의한 언론단체로 개정위원회를 만들어 개정한다.

2020년 4월 28일

한국기자협회, 방송기자연합회, 한국과학기자협회

## 붙임2

## 코로나19 심각 단계 행동수칙

### [일반국민]

1. 흐르는 물에 비누로 손을 꼼꼼하게 씻으세요.
2. 기침이나 재채기할 때 옷소매로 입과 코를 가리세요.
3. 씻지 않은 손으로 눈·코·입을 만지지 마십시오.
4. 의료기관 방문 시 마스크를 착용하세요.
5. 사람 많은 곳에 방문을 자제하여 주세요.
6. 발열, 호흡기증상(기침이나 목아픔 등)이 있는 사람과 접촉을 피하세요.

### [고위험군] : 임신부, 65세 이상, 만성질환자\*

\* 당뇨병, 심부전, 만성호흡기 질환(천식, 만성폐쇄성질환), 신부전, 암환자 등

1. 많은 사람이 모이는 장소에 가지 마십시오.
2. 불가피하게 의료기관 방문이나 외출시에는 마스크를 착용하십시오.

### [유증상자] : 발열이나 호흡기증상(기침이나 목아픔 등)이 나타난 사람

1. 등교나 출근을 하지 마시고 외출을 자제해 주십시오.
2. 집에서 충분히 휴식을 취하시고 3-4일 경과를 관찰하여 주십시오.
3. 38도 이상 고열이 지속되거나 증상이 심해지면 ① 콜센터(☎1339, ☎지역번호+120), 보건소로 문의하거나 ② 선별진료소를 우선 방문하여 진료를 받으세요.
4. 의료기관 방문시 자기 차량을 이용하고 마스크를 착용하십시오.
5. 진료 의료진에게 해외 여행력 및 호흡기 증상자와 접촉 여부를 알려주세요.

### [국내 코로나19 유행지역]

1. 외출 및 타지역 방문을 자제하여 주십시오.
2. 격리자는 의료인, 방역당국의 지시를 철저히 따라 주십시오.